

##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

### 강은실

소박한 자유인 운영위원

나의 불행과 한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오랜 시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온 터여서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다. 소소한 경험은 누군가의 소소한 경험들 속에 녹아날 만한 것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위 어디쯤에 놓여 있을 뿐인데 무언가 써야 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난감한 일이었다. 다만 이런 난감함은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용기를 내봤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매 분기마다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이름이 호명되고 게시되던 학생이었다. 어찌해서 들어간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여섯 살 많은 언니와 여덟 살 적은 막내 남동생을 포함한 여섯 형제 중 유일하게 초·중·고·대학교 학창 시절을 온전히(?) 보낸 유일한 형제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한탄 끝에 늘 따라오던 “내가 살아온 얘기만 써도 책 몇 권은 쓸 거다.”라는 얘기와 적절한 시기에 지지와 지원이 없어서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얘기는 나에게 늘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고 나의 역할이란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것,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밖에 없었다. 물론, 가난한 시골이었고 부모님의 잦은 출타에 의해 가중되는 가사노동과 각종의 노동 부담은 논외로 한다.

19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많은 이들처럼 나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곧 변화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열정과 결의에 차 있었다.

91년 소련 몰락의 여파로 학생운동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고, 나는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법·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 학

생운동과 반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 반강제적인 분리는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상황만을 과하게 해석하고 집착하게 했다. 예를 들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그런 것들이었다.

정신적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태로 그 이후 십여 년 이상을 생존하기에 급급해 살았다. 당장에 돌봐야 할 자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곤궁, 신뢰하는 커뮤니티가 없는 고립된 생활은 상당 기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결혼제도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무기력까지 더해지면서 나는 내 안으로만 파고들었고 스스로 고립되어 갔다.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급급해 살다 보니 잊어지기도 했고 가끔씩 회한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살아지기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천상 주부가 되어 있었고, 개개인의 노력 정도로는 쉽게 벗어나기 힘든 가부장제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주부라는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빈곤과 사각지대로 바로 떨어지리라는 불안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장치이며 그렇게 유지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는 것을 익히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주부들을 배제된 존재로, 정책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참으로 기분 나쁜 각성이었다.

나는 이 사회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으나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정책적 대상, 시혜의 대상일 뿐이었다.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임노동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뻔뻔한 이 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싶었다.

가사노동을 임노동 관계에 편입시켜내거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투쟁은 그 착취구조가 무척 중층적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핵심축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단일하고 강력한 의제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힘겹더라도 싸우고 싶었던 이유는 체제 내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사회적 활동을 소거해 버리는 자본의 추악함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만이 정당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소극적 제한을 둔 (피)선거권이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 우리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상식이 되기까지 인류의 지적 유산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권리’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인류가 이룩한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며 모든 개인의 ‘경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적 이해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으며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공통부의 향유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경제적 독립(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빈곤의 해결(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관계는 선언에 그치고 만다. 적어도 과거의 유산을 공히 누리는 바탕 위에 현재의 노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부의 분배가 그러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제껏 자본의 위압과 허세에 눌려 잘 알지 못했던 역사의 비밀이 어찌면 자본주의를 한번 더 흔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레임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생산과정 전체는 생산하는 사람들인 노동계급이 주도해야 자본주의 폐해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분배과정도 노동계급과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생산과정의 필수요소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일거에 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생산력은 숙련공이 아니라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 하는 지적 게으름과 무지함이 답답할 뿐이다.

소소한 경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이렇게 끝난다. 소소한 경험은 경험의 틀거리에 갇히고,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이해는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빨려 들어 갈지라도 애써 이어 붙인 것은 서사와 담론의 간극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고만고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뻘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서사들이 모여 담론이 생기고, 그 담론에 의해 서사가 다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